

◎ 매매 동향

- 지난주 코스피 의약품 지수 -15%, 코스닥 제약 지수 -8%로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 각각 -13%p, -5%p 언더퍼폼
나스닥 바이오텍 지수는 -3% 하락하며, 나스닥 지수를 -4%p 언더퍼폼. 금주 트럼프의 약가 관련 연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
거대 PBM(약제비 관리기구)인 CVS Health와 제약보험사 Express Scripts 등 하락
- 타업종으로의 수급 이동 및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으로 제약/바이오 지수 하락.
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논란 등의 불확실성은 단기간 해소되기 어려워 당분간 제약/바이오 업종의 약세가 전망되나,
지난주 급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임. (올초 고점 대비 의약품 지수 -25%, 제약 지수 -17% 하락)

◎ 주요 주간 이슈 (국내)

- **엔케이맥스** : 에이티젠 자회사는 엔케이맥스(자가, NK세포 치료제) 6월 식약처에 임상 1/2상 승인 신청 계획. '22년 허가 목표 (5/4)
일본 환자 투약, 미국, 멕시코 임상 준비 중
- **바이오메드** : 신약개발에 필요한 하드웨어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옥 및 연구시설 확장을 위해 472억원 신규 투자 공시 (5/4)
- **알테오젠** : 황반변성 주사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전임상 완료. 올해말까지 IND 자료 완성 계획 (5/3)
① 아일리아 물질 특허 2022년
① 일본 키세이와 공동 개발. 일본 판권은 키세이 보유/ 국내 판권 알테오젠 보유/ 이외 전 세계 지역 양사 공동 권리 판매 및 L/O 가능
- **바이오니아** : 미국 유산균 전문기업 UAS Labs에 유산균주 기술 수출 (5/3)
유산균주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BNR17를 미국, 캐나다에 독점 공급. 판매 로열티 10% 중후반
- **제넥신** : 미국 관계사 네오이뮤텍의 하이루킨7, 로슈의 면역관문억제제 티췌트릭과 병용투여 공동개발 계약 체결 (5/2)
흑색종, 머켈세포암, 피부편평세포암 등 3개이며, 약 70명 대상으로 임상 진행 예정
- **안트로젠** : 줄기세포치료제(ALLO-ASC-Sheet, 이영양성수포성표피박리증)가 일본 허가 사전상담 시작 (5/2)
늦어도 다음달 일본 허가기관에 의약품허가신청 할 예정. 사전 회의 시작 후 허가신청까지 4~5개월 소요
첫 해 판매 목표 약 200억원(40,000장 * 수출 단가 500달러). 일본내 보험 약가는 1,500달러로 예상
- **SK케미칼** : 백신 사업 분사 결정. 신설회사 발생주식의 100%를 배정받는 단순물적분할 방식. 7/1일자로 분할 (5/2)
- **삼성바이오로직스** : 금감원,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으로 잠정 결론 (5/1)
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텍의 지분 가치를 장부가액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잡으면서 실적 부풀렸다고
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조치 사전 통지서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 통보
① 삼성바이오텍의 장부가액 3,300억원 → 공정시장가액 4조8,000억원
① 향후 일정
: 감리위원회(17일) 임시회의에서 위반 여부 판단 → 23일 or 6/7일 증권사물위원회 결론 내림
과징금 규모 5억원 이상 결정하면,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다시 결정



①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작성기간 연장을 요청

② 감리위원회 개최 전 충분한 의견서 작성기간 할애 요청 및

"자본시장 재질차 개선" 취지에 맞추어, 대심제 시행과 소위원회 제도 등 회사 소명 기회 부여 요청

- **소송** :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미국 민사소송에 대해 법원 각하 판결. 에볼루스에 대한 소송은 유지 결정 (4/30)
- **휴온스** : 유럽에 휴톡스 7년간 567억 공급 계약. 2021년 상반기부터 유럽에 휴톡스 본격 수출 예정 (4/30)

◎ 주요 주간 이슈 (해외)

- **Evolus** : 앨러간 미국 Medical Aesthetics 부사장을 지냈던 David Moatazedi를 사장 및 CEO로 발탁했다는 소식에 당일 주가 +20% 상승 (5/7)
Moatazedi는 앨러간에서 보톡스, 주비덤 등의 미용 브랜드 전체를 이끌었고, 에볼루스에 '18.5.6 함께하게 됨'
‣ 에볼루스는 대웅제약의 나보타 미국 판매 파트너사

- **Teva** : 1Q18 실적 컨콜에서 몇달내에 셀트리온 허가 재심사 받게 되었다고 언급. 실사 통과를 자신했으며, 프라마네주맙 연내 출시 기대 (5/4)
공장 재심사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나, 바이오시밀러(트룩시마, 허주마) 내년 출시 계획 있다고 언급

- **Coherus** : 뉴라스타(GCSF) 바이오시밀러 CHS-1701 BLA 재신청 (5/3)
‣ 현재 뉴라스타 바이오시밀러 FDA 허가 품목 없음.
한미약품이 스펙트럼에 기술 수출한 롤론티스(G-CSF)는 뉴라스타를 개선한 바이오베터이며, 올해 4Q FDA에 허가 신청 계획

- **Regeneron** : 1Q18 컨콜, PD-1과 이중항체 병용 요법에서 높은 가능성 확인 (5/3)

- **Sandoz** : 리툭산 바이오시밀러 '릭사톤'도 FDA로부터 허가보류/자료보완(CRL) 받음 (5/3)
‣ 미국 특허만료 '18.12월
(코멘트) 미국 출시가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셀트리온과 산도즈 모두 CRL 받음. 다만, 셀트리온이 앞서 CRL 먼저 받았기 때문에 먼저 해결할 가능성도 높음

'17 매출 (\$bn)	제품명	경쟁사	현황	품목명	비고
7.7	Rituxan/MabThera (Rituximab) Roche/Genentech	1 Celltrion/Teva	EMA 승인('17.02) FDA 허가신청('17.06)	Truxima(CT-P10)	'17.1H FDA 허가신청 계획 FDA로부터 CRL 받음
		2 Sandoz	EMA 승인('17.06) FDA 허가신청('17.09)	Rixathon(GP2013)	FDA로부터 CRL 받음
		3 Amgen/Allergan	3상 진행 중	ABP798	
		4 Pfizer	3상 진행 중	PF-05280586	'18.1월 1차지표 달성
		5 Archigen Biotech*	1상 신청('16.06)	SAIT101	'12년 중단했던 프로젝트 재진입

- **Spectrum** : 1Q18 컨콜에서 롤론티스 3상 데이터 아스코에서 밝힐 계획. 4Q18 허가 신청 제출 계획 (5/2)
포지오티닙, exon 20 삽입 변이 환자 현재까지 무진행 생존 기간(PFS) 중간값 6.6개월 기록. '18.9.23-26 세계 폐암 학회에서 추가 데이터 공개 예정

- **Mundi Pharma** : 셀트리온의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허주마 유럽(영국, 독일, 이탈리아 등) 출시 (5/2)

- **J&J** : BeneVir Biopharm과 전임상 단계의 항암바이러스 파이프라인 최대 10억 4,000만 달러 규모 계약 체결 (5/1)
BeneVir의 핵심 기술은 T-Stealth으로 암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진입해 살상. 면역관문억제제에 반응하지 않은 70~80% 타깃이 목표

- **Gilead** : 1Q18 매출액 \$5,088mn(YoY -22%) 기록. 이 중 HCV 사업부는 경쟁 심화로 \$2,576(YoY -59%) 매출 하락 (5/1)
CAR-T 치료제 Yescarta는 \$40mn 기록함
‣ HCV 세부 품목

	1Q18	1Q17	YoY
엡클루사	536	892	-39.9%
하보니	348	1,371	-74.6%
보세비	107	-	
소발디	55	313	-82.4%
합계	1,046	2,576	-59.4%

- **Pfizer** : 1Q18 인플렉트라 미국 매출액 \$55m(YoY +223%, QoQ +25%) (5/1)
미국에서 인플렉트라 상용화 노력 계속 하고 있으나, 리베이트 시스템 관련해서 정부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언급
레미케이드 바이오시밀러 유럽 침투율 56%, 미국은 6%으로 뭔가 잘못되고 있다며, 정부의 바이오시밀러 정책을 촉구하고 있음

출처 : 의학뉴스, 메디파나, CNBC, 각 사

◎ 예상 주요 일정

- **실적 발표** : 셀트리온, 대웅제약 등

• 트럼프 약가 관련 연설

* 일자 확정되지 않았으나, CNBC등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약가를 낮출 수 있는 신규 정책 관련하여 금주에 언급이 예상됨
기존 예정되었던 연설(4/26)은 Health and Human Services 비서 Azar가 계실염으로 입원하면서 연기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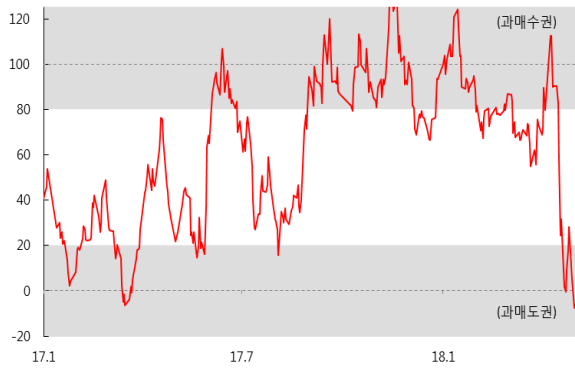
◎ 기업설명회 : 올리고 신약 개발 현황 및 에스티팜 미래전략 5/3

기업 개요	신약 API CMO 1983년 삼천리 그룹이 신광약품 인수. '88년 Thymidine을 GSK,BMS 등에 공급. 2000년대 중반 올리고 공장을 준공
설명회 주요 내용	<p>• 올리고 CMO 사업 소개 : 아시아 최초 GMP Oligo 생산 서비스 시작 '08년 세계 유일의 모너모/올리고 동시 생산 CMO '80년대부터 시작된 글로벌 제약사와 오랜 거래 경험으로 품질 보증</p> <p>• 올리고의 정의 : 올리고는 DNA, RNA 핵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약물 일반 약물은 단백질에 결합하여 작용 일으키는데 반해 올리고는 단백질보다 RNA에 작용함 단백질에 작용하는 것 보다 서열 상보적인 결합으로 인해 RNA 작용해서 질병에 원인이 되는 단백질 억제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내며 소량의 올리고만 넣어도 효능을 얻을 수 있음 ex) mRNA 가 중간에 뚫 끊어져서 단백질 합성을 못하게 함</p> <p>¶ RNA의 역할은 과거 DNA 서열 받아서 단백질로 전달하는 중간체로 여겨졌음 DNA의 75%가 RNA 서열로 변환되나, DNA의 2% 만이 단백질로 변환되는걸 봐서 단순히 서열 전달 작용 외 많은 세포 기능이 있을 것으로 예측</p> <p>• 올리고 약물의 특징 : (장점) 약물 디자인이 쉬움. 서열만 알면 타겟에 대해 상보적으로 만들어 인간에 적용하면 됨 신속한 약물 후보 도출 가능. 전임상이 1~2년안에도 마침 불치, 난치병 적용 가능(유전질환 등)</p> <p>: (단점) 세포 내에 안정성이 별로 없음. Chemical Modification을 통해 많이 해결됨 Off-Target 부작용 딜리버리가 가장 큰 문제 였으나, 최근 Lipid Nanoparticle, Receptor binding molecule 붙여서 일부 진전</p> <p>• 올리고 글로벌 개발 현황 : 올리고 실제 상용화에 성공한 약물이 '16년말 출시. 개화 시작 올리고 글로벌 신약 개발 수도 121개('02년) → 422개('17년) 증가 추세</p> <p>• 에스티팜 올리고 프로젝트 현황 : Imetelstat : 임상 3상 (골수섬유증, 골수형성이상증후군) SiRNA : 전임상 ~ 임상 2상 (Bgudrksdua, 황반변성, 세포치료제, 항암제) Antisense : 임상 1상 ~ 임상 3상 (헌팅틴, 면역질환, 대사질환) saRNA : ~ 임상 1상(C형간염, 신장질환) miRNA : ~ 임상 1상</p> <p>• 신약 개발 현황 : Tankyrase 효소 저해제 대장암 치료제 올해 임상 1상 진입 예정 경구용 헤파린을 통한 심부정맥 혈전증과 AIDS 치료제 내년 임상 1상 진입 계획</p>

◎ 기업설명회 : 올릭스, 자체 RNA간섭(RNAi) 기반 기술을 이용한 신약개발 전략과 성과 5/3

기업 개요	3세대 플랫폼인 올리고핵산치료제 중 RNA 간섭기술 원천 기술 확보한 신약개발기업 2010년 설립. 주요 파이프라인으로 비대흉터치료제가 있으며, 아시아 최초 자체기반기술로 임상진입함
설명회 주요 내용	<p>• 회사 개요</p> <p>: RNA 간섭 기술 바탕으로 신약 개발사</p> <p>3세대 신약개발 플랫폼. (1세대는 저분자화합물, 2세대는 바이오)</p> <p>염기서열을 기반으로 하며, 다양한 유전자를 표적함</p> <p>자가 전달 비대칭 특징을 살릴 수 있는 국소 투여 질환에 집중하며, 피부/호흡기/안과 등에 집중</p> <p>• 기존 신약과 차이점</p> <p>: 기존 약물 처럼 단백질 타겟이 아니라 중간 mRNA를 타겟으로 질환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함</p> <p>¶ 기존 신약의 한계. 인간 게놈프로젝트 수행으로 약 23,000개의 유전자 존재 확인되었으며, 이 중 1,2세대 신약 플랫폼으로 표적 가능한 유전자의 개수는 15% 이하</p> <p>¶ 올리고 핵산(3세대) 신약은 유전정보흐름의 중간산물인 mRNA에 결합하여 단백질 생성 원천 억제함</p> <p>: siRNA 장점은 1) 신규 타겟 신약 개발 가능. 2) 플랫폼으로 다양한 질환 타겟 가능</p> <p>• 출시된 제3세대 올리고 신약 개발 플랫폼</p> <p>: 2013년 Ionis의 Mipomersen(고지혈증) 허가</p> <p>2016년 Sarepta의 Eteplirsen(듀켄씨근이영양증) 허가</p> <p>2016년 Ionis의 Nusinersen(척수근위축증) 허가</p> <p>2018년 Alnylam의 Patisiran 아밀로이드증 siRNA로 최초 허가 예상</p> <p>• 핵심 기술</p> <p>: 비대칭 구조. 세포내 전달 기술이 가능한 기술 보유</p> <p>RNA는 올리고 두가닥이 대칭임. 동사는 2가닥 중 하나가 짧은 비대칭 구조임</p> <p>Immune 독성이 생성되는 이유는 염기쌍의 길이 때문. 뉴클레오타이드 인지하는 수용체가 외부 물질이라 판단</p> <p>동사는 염기쌍을 감소시켜 수용체가 인지하지 못하게 회피</p> <p>• 파이프라인</p> <p>: OLX101(비대흉터/켈로이드) - 국내 1상 투여 완료. 해외 1상 승인 신청</p> <p>¶ 수술/외상 후 진피층에 콜라겐 과다 증식해 비정상적인 흉터 생성. 현재 기전적으로 비대흉터 완치제 없음</p> <p>→ Best in class 전략. Rxi사가 RXI-109(siRNA, 표적 단백질 CTGF)로 현재 임상 2상 중</p> <p>¶ 비대흉터/켈로이드 시장 4,809백만 달러</p> <p>OLX201(특발성 폐섬유화) - 전임상</p> <p>¶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에 섬유가 생기고, 조직이 굳어 호흡을 하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됨</p> <p>→ Fibrogen사가 동일 유전자 표적 CTGF 정맥주사 항체 신약으로 현재 2상 종료</p> <p>동사는 inhalation(흡입)으로 복용 편의성 경쟁</p> <p>¶ 특발성 폐섬유화 치료제 시장 13억 달러</p> <p>OLX301D(망막하 섬유화/습성황반변성) - 전임상</p> <p>OLX301A(건성황반변성/습성황반변성) - 전임상</p> <p>¶ 황반변성 치료제 시장 6,237백만 달러(ex, 아일리아, 루센티스)</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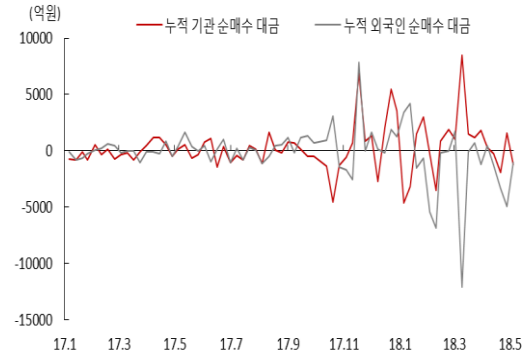
◎ 제약/바이오 상대업종지수 envelope 추이



자료: WiseFn, 하이투자증권

주: 엔벨로프지표(중심선과의 이격도를 나타내는 지표. 동 차트는 60일 이평선 및 이격도 ±2표준편차로 설정)

◎ 건강관리 섹터 기관, 외국인 수급



자료: WiseFn, 하이투자증권

◎ 업체별 수익률 및 밸류에이션

구 분	회사명	시가총액 (억원)	수익률				순이익 ('18E)	PER ('18)
			1주	1개월	3개월	YTD		
바이오시밀러	셀트리온	312,771	-10	-15	-17	13	4,733	66
	삼성바이오로직스	237,863	-29	-29	-18	-3	(350)	
	셀트리온헬스케어	115,724	-11	-18	-34	-24	2,225	52
	에이프로젠제약	3,454	-8	-11	-6	-3		
	바이넥스	4,284	-15	6	21	25	160	27
대형주	한미약품	50,837	-6	-14	-21	-24	568	89
	유한양행	27,654	-4	-1	0	3	1,124	25
	녹십자	26,412	6	10	0	0	841	31
	대웅제약	20,334	-6	-16	4	7	454	45
	종근당	11,213	-5	-12	-18	-14	519	22
뷰티	동아메스티	8,435	-12	-6	-12	0	276	31
	메디톡스	37,786	-3	-11	13	38	908	42
	윌겔	20,906	-1	-22	-17	-14	863	24
	케어젠	10,195	3	-7	5	11	348	29
	휴온스글로벌	6,815	-12	-9	2	18	525	13
항암	휴온스	7,503	-12	2	17	23	360	21
	휴메딕스	3,393	-13	-18	-18	-16	100	34
	파마리서치프로덕트	4,312	-6	-16	-25	-23	251	17
	클래시스	3,640	-11	-6	-14	45	136	27
	신라젠	52,248	-15	-30	-28	-19	(520)	
항체	에이치엘비	44,754	4	53	178	217	(166)	
	코미팜	19,932	-8	-7	-9	-6		
	JW중외제약	7,913	-5	-9	-15	-11	154	51
	녹십자랩셀	5,952	-15	-16	-24	13	39	153
	레고켐바이오	4,564	-27	-30	-28	7	482	9
세포	엘콜론	3,869	-11	-1	-15	-13	(30)	
	알테오젠	4,388	-14	45	57	57	(1)	
	이수열지스	2,866	-15	-13	-22	25	(24)	
	네이처셀	15,802	-16	15	-2	30		
	차바이오텍	10,555	-9	9	-44	-10	314	34
진단	메디포스트	9,127	-12	-26	5	-1	15	608
	녹십자셀	5,807	-13	-14	-13	2	38	153
	프로스텍믹스	4,106	-23	9	11	27		
	파미셀	9,354	-14	-3	171	181	62	151
	테고사이언스	4,207	-11	-19	-5	4	73	58
유전자	JW신약	3,949	-14	4	-1	11		
	안트로젠	8,494	-10	-26	78	32	9	944
	강스렘바이오	2,215	-16	-23	-2	7	(88)	
	코아시스템	2,593	-14	-8	23	25	9	288
	코오롱티슈진(Reg.S)	23,659	-10	-17	-25	-25	(468)	
안과	바이로메드	31,944	-10	-17	-21	23	5	6,389
	코오롱생명과학	8,719	-6	-12	-21	-28	(40)	218
	마크로젠	4,254	-11	-18	-14	11	100	43
	바이오니아	2,351	-13	-16	10	27		
	한울바이오파마	14,784	-11	-17	-20	16	70	211
기타 R&D	지트리비엔티	10,136	-9	-17	10	24		
	삼천당제약	9,682	-9	0	12	184	175	55
	디에이치피코리아	1,814	-7	6	-12	38	155	12
	영진약품	15,272	-5	-15	-12	-5		
	제넥신	21,271	-9	-11	28	43	(131)	
진단기기	부광약품	13,097	0	-1	5	14	73	179
	CMG제약	6,152	-12	-17	23	-9		
	제일약품	5,500	-12	-15	-26	-16		
	일양약품	7,523	-5	-8	-2	2	111	68
	팜토폴	3,954	-26	-27	-27	-19	(59)	
원료	셀바이오텍	4,014	-4	-7	-8	7	215	19
	오스코텍	6,813	-12	-20	40	52	(20)	
	메지온	4,756	-6	-10	38	39		
	큐리언트	1,945	-10	-4	-24	-16	278	7
	오리엔트바이오	1,746	-4	-1	-8	-1		
진단기기	아이진	3,232	-12	18	24	51		
	바이오리더스	2,963	-16	-15	51	87		
	팜켄	1,692	-10	-7	1	19	11	154
	유바이오로직스	1,963	-2	-4	5	47	110	18
	에나젠	1,048	-13	-23	-18	-21		
중소제약사	셀트리온제약	29,108	-6.3	4.1	-11.2	89.7		
	동국제약	5,958	-6.6	-3.9	-7.5	5.7	402	15
	일동제약	5,214	-5.3	-4.6	-8.7	3.2	250	21
	삼진제약	6,290	-4.0	5.7	14.9	26.2	403	16
	유나이티드제약	4,360	-3.8	-5.6	-17.2	-11.7	284	15
진단기기	광동제약	4,644	-5.7	-0.9	-9.1	1.3	247	19
	대화제약	5,085	-12.3	-11.4	-0.5	12.7		
	신풍제약	5,669	9.2	16.4	20.5	89.1		
	이연제약	4,293	2.0	7.1	6.2	19.1	156	28
	보령제약	4,641	-12.9	-12.7	-6.7	9.1	186	25
진단기기	대원제약	3,782	-4.6	-1.3	-5.7	-2.6	225	17
	일성신약	3,059	-1.7	-0.9	-7.3	-14.2		
	한독	4,418	-6.7	-17.2	-11.2	-2.7	(3)	
	동구바이오제약	2,804	-13.0	-31.5	0.0	-29.8		
	알보젠코리아	3,249	-0.5	-0.4	-2.7	-3.2		
진단기기	JW생명과학	3,967	-4.6	-15.8	-2.2	19.0	209	19
	경동제약	3,312	0.0	4.6	-4.8	11.9	228	15
	동화약품	3,198	-1.7	-6.5	11.2	17.4		
	알리코제약	1,631	-10.5	-20.6	0.0	-27.7		
	대한약품	2,676	-0.8	0.2	-1.7	8.9	200	13
진단기기	대한뉴팜	2,412	-2.3	14.7	17.1	23.5		
	삼성제약	2,139	0.2	-18.7	-6.1	-0.1		
	비씨월드제약	2,330	-5.2	14.3	22.3	29.9	106	22
	안국약품	1,904	-11.0	-15.1	-12.6	19.2	47	41
	영문제약	1,941	-8.1	-19.9	29.7	35.1		
진단기기	우리들제약	1,296	-11.5	-8.2	3.7	-2.2		
	조아제약	1,727	3.2	-7.6	11.5	31.6		
	현대약품	1,920	-7.6	-25.8	10.3	58.1		
	원일제약	3,869	-8.4	-17.0	-10.7	-6.5	238	16
	명문제약	1,941	-8.1	-19.9	29.7	35.1		
진단기기	신신제약	1,418	-13.8	-22.7	-16.1	24.7		
	고려제약	1,005	-11.3	-26.9	21.2	29.7		
	퓨저켄	1,094	-16.5	-0.5	-19.0	5.7	1	1,094
	메디프론	1,946	-10.9	13.6	-0.9	21.5		
	오스템임플란트	7,529	-5.9	-0.6	-7.7	-10.8	234	32
진단기기	디오	6,213	-4.0	-6.3	2.5	15.5	231	27
	덴티움	8,612	-0.6	-1.6	12.8	24.9	386	22
진단기기	인바디	5,542	-11.8	-14.8	-1.0	1.0	261	21
	바텍	5,674	-8.2	1.5	2.7	12.2	355	16
	인터로조	3,801	-2.7	-14.4	-21.8	-10.9	237	16
	뷰웍스	3,776	-6.2	-2.5	-12.3	-7.7	239	16
	아이센스	3,737	-4.2	-5.4	2.5	7.5	195	19
진단기기	루트로닉	4,008	-15.1	-20.2	10.7	88.4		
	한스바이오메드	2,864	-4.0	1.4	-3.5	-4.9	100	29
	셀루메드	3,495	-18.2	11.3	85.2	85.4		
	세운메디칼	2,050	-2.2	-6.8	-4.5	28.2	111	18
	엘엔케이바이오	1,003	-6.9	-16.2	-15.8	-13.3	98	10
진단기기	유엔아이	1,065	-1.8	13.1	8.6	10.8	19	56
	씨젠	8,854	-5.7	-2.5	-7.5	0.8	142	62
	인트루바이오	6,241	-9.3	-9.8	-6.0	-7.2		
	에이티젠	4,710	-6.8	-5.0	-21.7	-4.5	(67)	70
	바디텍메드	3,856	-9.8	-12.4	-15.1	-7.5	61	63
진단기기	파나진	2,551	-8.2	-16.5	-24.8	-6.0		
	테라젠이텍스	5,550	-12.4	4.9	58.0	64.8	20	278
	아스타	1,486	-7.6	9.7	-25.8	-20.2	(50)	
	나노엔텍	1,503	-7.4	4.5	-12.7	-1.5		
	녹십자엘에스	1,142	-7.7	-15.0	-15.9	0.8		
진단기기	피씨엘	1,231	-12.9	-20.2	-8.0	-20.5		
	퓨저켄	1,094	-16.5	-0.5	-19.0	5.7	1	1,094
진단기기	에스티팜	6,959	-7.8	-15.5	-15.0	12.9	231	30
	경보제약	3,239	-6.9	-13.4	-7.8	8.0	220	15
	에스텍파마	1,571	-7.4	-4.7	-14.0	8.2		
	종근당바이오	1,140	-8.2	-11.6	-13.8	2.1	133	9
	진원생명과학	1,482	-8.7	3.2	0.0	18.4		
진단기기	중앙백신	1,793	-0.4	36.1	37.6	42.9	68	26

자료: DataGuide, 하이투자증권

◎ 주요 업체들의 분기별 예상 가능한 일정

구 분	업체명	18.1Q	18.2Q	18.3Q	18.4Q	2019
승 인	삼성바이오로직스				· 삼페넷(허셉틴 BS) 미국 FDA 승인(11월) · 임팔디(휴미라 BS) 유럽 출시 · 3공장 밸리데이션('18년말)	
	녹십자			· IVIG-SN FDA 승인(중하순)	· IVIG-SN 미국 출시(4Q18)	· 캐나다 공장 가동 (100만 리터)
	대웅제약			· 나보타 미국 FDA 승인 ('18년 중하순)		
	셀트리온	· 허쥬마(CT-P06, 허셉틴 BS) 유럽 승인			· 트룩시마(리독산 BS) 미국 FDA 승인 · 허쥬마(허셉틴 BS) 미국 FDA 승인	
	SK바이오팜				· SKL-N05(폐쇄성수면무호흡 증) FDA 허가 승인	
상 장	올릭스		· 상장			
	셀트리온	· 코스피 이전 상장(2/8)				
임 상	한미약품	· 롤론티스(호중구감소증치료제) 타라인 결과(2월) · Triple Agonist(비만) 1상 진입(2월)	· 안센, LAPS-GLP/GCG 1상 완료('18.1H)		· 롤론티스 BLA 신청('18년말)	· 롤론티스 미국 FDA 승인
	동아에스티	· DA-1241 1a 미국 완료	· DA-1241 1b 진입			
	중근당				· CKD-504(현팅턴) 미국 1상 종료(18.2H) · CKD-516(대장암) 국내 2a상 종료(18.2H)	
	유한양행		· YH25448(표적 폐암) 1상 미국 암학회(4월), ASCO 중간 발표(6월)			
	제넥신		· 하이루킨 ASCO 발표(6월)		· GX-H9 인성장호르몬 미국 3상 승인	
	신라젠	· 펙사벡 중국 환자 등록	· REGN2810(신장암) 병용 1상 개시 · ASCO 발표(6월)	· 펙사벡(간암) 무용성 평가 발표(8월)	· 트렌스진, 여보이+펙사벡 임상결과('18.2H)	

◎ 주요 학회 일정

구 분	세부 일정	학회명	비 고
'18.1월	'18.1.8~'18.1.11	J.P. Morgan Healthcare Conference	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행사. 다국적 제약사, 바이오텍 다수 참석
'18.3월	'18.3.17~'18.3.20	ENDO 2018	미국 내분비학회
'18.4월	'18.4.14~'18.4.18	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	미국 암학회
'18.6월	'18.6.1~'18.6.5	ASCO Annual Meeting	미국임상종양학회. 세계 최대 암학회
	'18.6.2~'18.6.7	BIO International Convention	세계 최대 바이오산업 전시 컨퍼런스
	'18.6.13~'18.6.16	EULAR Annual Congress	유럽류마티스학회
	'18.6.22~'18.6.26	American Diabetes Association	미국 당뇨 학회
'18.9월	'18.9.19~'18.9.23	ESMO 2018 congress	유럽종양학회
	'18.9.23~'18.9.26	IASLC World Conference on lung cancer	세계 폐암 학회
	'18.9.27~'18.9.29	ESPE - European Society of Paediatric Endocrinology	유럽소아내분비학회
'18.10월	'18.10.1~'18.10.5	EASD 2018 Annual Meeting	유럽당뇨학회
	'18.10.19~'18.10.24	ACR/ARHP Annual Meeting	미국류마티스학회

Compliance notice

당 보고서 공표일 기준으로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,

- ▶ 회사는 해당 종목을 1%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금융투자분석사와 그 배우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회사는 6개월간 해당 기업의 유가증권 발행과 관련 주관사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[작성자 : 허혜민](#)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재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재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

1. 종목추천 투자등급 (추천일 기준 증가대비 3등급) 종목투자의견은 향후 12개월간 추천일 증가대비 해당종목의 예상 목표수익률을 의미함.(2017년 7월 1일부터 적용)

- Buy(매 수): 추천일 증가대비 +15%이상
- Hold(보유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 ~ 15% 내외 등락
- Sell(매도): 추천일 증가대비 -15%이상

2. 산업추천 투자등급 (시가총액기준 산업별 시장비중대비 보유비중의 변화를 추천하는 것임)

- Overweight(비중확대), - Neutral (중립), - Underweight (비중축소)

하이투자증권 투자비용 등급 공시 2018-03-31 기준

구분	매수	중립(보유)	매도
투자의견 비율(%)	93.6 %	6.4 %	-